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8~6/2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6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2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7	정관스님 나의 음식	정관, 후남 셀만	월북
3	생전예수재(개정판)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8	원각경	김현준	효림
4	네 가지 마음 챙기는공부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행복한 삶 그리고 고요한 죽음	달라이라마	하루헌
5	예수재의범	해사	운주사	10	개미의 발소리	진우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365일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그림	조계종출판사	6	천수다라니와 앙코르와트의 비밀	전재성 지음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	참회	김현준	효림	7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개정판)	석성우,석지현	민족사
4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2)	비구 범일	여시아독	9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5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	운주사	10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야차, 아수라…괴물이라 불린 신들



나는 신이로소이다
김용덕 지음
미술문화 / 2만6000원



전쟁과 투쟁의 신 '아수라'는 고대 인도의 신이었으나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으로 거듭난다. 사진은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에 표현된 아수라. 조선 175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문화 속 낯설고 위대한 존재
경전과 도상으로 읽는 시대 정서
동물-신-요괴 '크리처 3부작'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흔히 '아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아수라장'이나 온갖 범죄를 그린 영화 '아수라' 혹은 일본 애니메이션 '마징가' 속 아수라 백작 등 뭔가 꺼림칙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그려질 듯하다.

하지만 아수라는 불교를 수호하는 신(神)이다. 반은 인간, 반은 독수리의 형상을 한 아수라의 기원은 조로아스터교에서 모시는 주신(主神) 아후라로 알려져 있다. 인도로 전해진 아후라는 브라만교에 편입되면서 아수라가 되고, 인도 토속신 대부분이 그러하듯 불교에 스며든다. 초기 불교 경전 속 아수라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싸우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결국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神衆)으로 거듭난다.

〈나는 신이로소이다〉는 아수라와 야차, 가루다, 시왕, 수성노인 등 불교 전통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형(異形)의 존재들을 소개하는 책이다. 우리와 다르게 생겼기에 '괴물'이라 불리기도 했던 존재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인간의 마음과 믿음을 반영하며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경전과 신화, 민담을 넘나들며 미처 몰랐던 존재들의 근원을 살피고, 다채로운 도판과 시각 자료를 통해 신적 존재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교수는 추천사에서 "장르 콘텐츠의 밑바탕이 되는 원전을 학자와 창작자의 시각 사이에서 균형 있게 다루었다"고 책의 의미를 짚었다.

저자는 첫 책 〈문화재에 숨은 신비한 동물 사전〉으로 '불교 크리처' 붐을 일으킨 김용덕 학예사(한국전통예술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 그는 여러 특강과 대학 강의, 유튜브를 통해 가릉빈가, 뇌공신, 화상어 등 불교문화에 등장하는 환상동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신화와 캐릭터 분석'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사찰을 지키는 금강역사와 석탑 기단에 새겨진 야차, 벽화에 그려진 가루다, 외계인처럼 긴 정수리를 한 수성노인 등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저자는 MZ세대들이 이 같은 동양적·불교적 신에 열광하는 이유로 '신선함'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최근 '힙(Hip) 불교' 열풍으로 학생들이 불교를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새로운 캐릭터에 갈증을 느끼는 창작자들은 제우스나 토르 같은 익숙한 서양 신이 아닌 금강역사와 시왕 같은 존재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의 포용성도 큰 이유다. 그는 "불교는 다른 문화 속 토속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며 "인도 토속신에서 불교의 수호신이 된 야차, 남극성 신화에서 유래해 장수를 상징하게 된 수성노인처럼 문화 간 전이와 의미의 확장을 보여주는 존재들은 시대의 정서와 욕망이 응축된 문화적 텍스트"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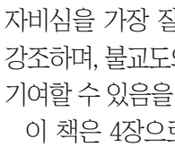


전작에서 환상동물, 이번 책에서 신을 다룬 저자는 앞으로 요괴를 소개하는 책을 집필해 '크리처 3부작'을 완결할 예정이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는 낯설고 기묘한 전통문화 속 존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재해석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며 "독자들이 책을 들고 사찰을 찾아가 불교 문화유산에 새겨진 다양한 신들을 만나볼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명사 서평

대한불교진흥원은 불교학 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대원불교학술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28번째 책인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서평을 이한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경희대 석좌교수)이 보내왔다. 〈편집자 주〉

불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구상진 지음
운주사 / 3만3000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접점 탐구
번뇌·무지 해방으로 진정한 자유 실현
"시대정신과 사회적 과제에 응답해야"

불교는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하는가? 그것은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20세기 일부 사람들은 불교사상과 사회주의의 일치를 주장하며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고, 평등과 사유재산의 부정을 불교와 사회주의의 접점으로 삼기도 했다. 동남아의 몇 나라들은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책은 현대사회 속 불교의 역할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밝힌다. 저자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적 신앙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적 현실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불교의 보살정신과 자비심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불교도의 국정 참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는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서구적 전개,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역사적 과정을 정리한다. 저자는 많은 한국인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고 보며, 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둘째, 불교와 자유민주주의의 접점을 탐구하면서, 불교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성숙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불교와 자유민주주의는 모두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고,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처럼 인간을 권력의 도구로 취급하는 견해를 배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 자유의 개념은 서구 철학과 정치사상 내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자연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선험적 자유와 실정법상의 자유,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등 그 스펙트럼은 넓다. 그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관은 '비예속 상태로서의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율적 수행과 자기해방의 개념과도 상응한다.

저자에 의하면 불교는 출발부터 외적 권력이나 조건에 의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면의 번뇌와 무지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길을 제시해 왔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제도로서의 자유를 지향한다면, 불교는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해방과 자주를 추구한다. 양자는 상보적으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철학적 기반을 이룬다.

저자는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가 평등, 박애, 행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체제라면, 불교 또한 자비와 배려, 그리고 연기 사상을 통해 공동체적 윤리를 강조한다고 해석한다. 이런 윤리적 기초 위에서 불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화시키고, 권위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인간 내면의 해방이라는 궁극의 자유로 나아가게 한다. 불교와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전통에 기반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상적 동반자이다.

결국 이 책은 불교가 시대정신과 정치 사회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문명사적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불교가 공공선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제안을 담고 있다. 불교의 침묵이 사회적 퇴행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현대 불교가 수행과 사변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사회 참여와 정치적 책임의식을 내면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불교적 자유민주주의 지도자 양성을 우리 시대의 과제로 제시한 점에 깊이 공감해 마지않는다. 이한구 경희대 석좌교수

만법이 오직 한마음[一心]일 뿐이다!

회통불교의 진수를 담은 영명연수 선사의 대표작,
『주심부(註心賦)』 완역!

『주심부』는 모든 불법의 교설과 수행관의 종지가 '마음'에 있음을 노래한 『심부』에 해설을 덧붙인 책이다. 일심(一心) 사상으로 화엄·천태·중관·유식·정토·선종을 하나로 묶은 회통불교의 값진 저술이다.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각자 근기에 따라 공부하고 수행함에 길을 잃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스님들의 스승,
전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 스님의 유작

연관 스님은 평생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삶을 살다간
이 시대 수행자의 표상이다. 직지사와 김용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조계종 최초 승가전문교육기관인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의 학장을 맡아
여러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전국 선원(禪院)을 돌며 수행정진했으며,
역경에도 진력하여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불서들을 다수 번역·출간했다.
이 책은 원융한 수행자로서 자기 수행과 전법교화에 헌신했던
연관 스님의 마지막 번역이다.

오직 한마음이 무엇인가 ——
마음의 노래, 주심부

영명연수 지음, 연관 옮김 | 976쪽(양장) | 5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